

#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유·무념 대조 체험수기

## “나는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작성지 성명	백	소속 : 원광여고	학번 : 3
<p>귀공주 노랫소리를 들으며 무의미하게 개구리 알을 그리던 날 저녁, 나는 설지지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행주로 닦아내고 있던 엄마의 어깨가 축 늘어져 보였다. 마치 엄마의 어깨에 큰 돌 덩어리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원래 저렇게 작았던가. 나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이었지만 그날 엄마는 나보다 한없이 작아보였다. 그땐 나는 처음으로 내게 스스로 질문했다. 무엇을 위해 동그라미를 그렇게 열심히 그려댄 거냐고.</p> <p>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분명 스스로 자책을 하며 엄마를 도와야지 싶어도 다음날만 되면 까맣게 잊어버렸다. 누가 내 기억을 감아먹기라도 하는 것인지 딱 그것만 기억나지 않았다. 눈이 뚱뚱 부은 얼굴로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던 내게 냉장고에 있는 김치 좀 꺼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짜증났던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결국 엄마가 움직였다. 아빠와 나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 밥하고, 소시지도 볶고, 계란찜을 만들던 엄마가 그것을 꺼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 가서 귀공주 노트를 꺼내니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모두가 동그라미를 채우고 있었지만 나 혼자 '충효심 기르기'에서 멈췄다. 엄마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상환하지 못한 게 떠올라 부끄러웠다. 처음으로 나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귀공주 노트를 덮었다. 평소처럼 개구리 알을 그릴 수가 없었다.</p> <p>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와 아바는 잠을 자고 있었다. 불이 다 꺼진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다 발견한 것은 싱크대 위에 쌓여있는 그릇이었다. 그곳을 보니 한없이 작아보이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설거지를 했다. 아이 자리가 원래 그런 곳인가. 엄마가 했던 것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거품 문은 그릇을 물로 씻어낸 것뿐인데 어깨가 쿵쿵 뛰었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팔이 저리는 기분까지 들었다. 항상 설거지를 하던 엄마도 그랬을까. 그제야 내가 너무 못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주말만큼이라도 부모님께 효를 실천해야</p>			

< 뒷면에 더 있어요! >

작성자 성명	박 [ ]	소속 : 원광여고	학번 : 3 [ ]
<p>겠다고.</p> <p>그렇게 해서 맞이한 주말에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엄마와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줬다. 어깨에 부모님의 고단함, 힘듦이 뽐쳐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어떠한 부탁도 없이 스스로 어깨를 주물러주니 놀란 눈치였다. 엄마는 눈가에 잔주름을 깊게 새기며 웃었다. 덩달아 나까지 웃게 됐다. 어깨를 주무르고 나서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이것 역시 엄마 혼자 하던 거였다. 나는 엄마의 어깨에 뽐린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나로 인해 웃는 엄마의 모습도 눈에 담고 싶었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양말을 겠다. 나와 엄마가 나란히 빨래를 개고 있으니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괜히 뿌듯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효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걸 나는 뒤늦게야 알게 됐다.</p> <p>그때의 부모님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아침에 귀공주 노트를 펼 때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그린 등 그리미 안에 부모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손의 무게도 가벼웠다. 전에는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자신 있게 그렸다. 그것을 그리면 엄마의 미소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효를 실천하지 않았던 그날들을 반성하며 이제는 실천하려고 한다. 나로 인해 웃음이 번지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제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가려 한다. 귀공주 노트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나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 부모님을 도울 것이다.</p>			